

HUMANITY

- 동행
- 상생

同行

—

사랑가득 희망에너지!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이 자발적인 기부 활동을 통해 기업의 기부 문화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나눔재단’을 설립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에게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동행의 기쁨을 시나브로 키워 나가고 있는 현대오일뱅크.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제2, 제3의 아름다운 나눔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임직원의 진심이 이웃에게 닿기를 기대한다.

현대오일뱅크 1% 나눔재단



朝鮮日報

2012년 09월 17일 월요일 A35면 사람들 20.6 x 19.4 cm

월급 1% 평생 기부... 그 울림은 컸다

설립 1년 맞은 현대오일뱅크 1% 나눔재단

지난달 말 ‘현대오일뱅크 1% 나혜당’ 사무국에 우체국의 전화가 걸려 왔다. 총남 서연씨 대한항공에서 출근한 버스를 운전하는 현대오일뱅크 상선기사의 이환을 소개하였다. 그는 “비록 적은 액수지만 버스 운전 기사들이 급여 1% 나눔에 동참해 준다면 이웃을 돕고 싶어한다”는 뜻을 전하였다. 상선기사는 직원 22명 전원에게 2%의 약정을 맺고 월급 1% 기부를 시작했다.

작 1년 전인 지난 9월 25일 현대 오일뱅크 임직원들이 급여명세표 공개란에는 '급여 나눌 1%'라는 새 항목이 생겼다. 월급 1%를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금으로 자동 적립하는 이 항목은 '노후의 정(情)'을 의미

사 나고요. 오존층을 지킨 돈 임원들은 부의금 일부를 재단에 기탁했고, 잔여금을 결혼식인 김태영 3주忌일에는 유가족을 초청해 나누었습니다. 이날 유족 대표에서 받은 우승 상금, 상금 지원료도, 본인 결혼 후 물려받은 피조금도 여러 차례 오존층 자국과 같이 갔다. 1년

에 몇 차례 친목 모임을 갖는 일선
주요인 사장들도 그 자리에서 지갑
을 열어 십시일반 정성을 보냈고, 동
신입사원들도 기쁘게 동참했다.
올해 초 임사한 홍진덕씨는 "임사
전에는 솔직히 좀 부담스럽지 않

참아줬다는 감사의 마음을 계속 이어
났다.

현대오일뱅크뿐 아니라 포스코,
대우에너지, 삼성중공업 등 대기업이 1%

가 생각도 했지만, 내 생애 첫 월급
부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쓴다는 사
실에 자부심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출발부터 남달랐던 재단인 만큼



현대오일뱅크 1% 나눔재단이 지난 7월 초목(狀狀)을 앞두고 서울 서양노년종합복지관에서 노년층에 상계함을 대접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재단 이사를 맡고 있는 1호 펀드 회수중배, 김창기 재단이사장, 권오갑 현대오일뱅크 사장.

[illegible]

김덕현 기자 ducky@chosun.com

朝鮮日報

2011년 09월 09일 목요일 A02면 중첩 36.6 × 19.3 cm

“월급 1%, 한달 교통비 맞먹지만... 흔쾌히 서명”

급여 1% 나누기 약속한 현대오일뱅크 직원들— 또 하나의 자본주의 40

4월에는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자 1942년 4월 18일 제정된 '중립 조약'은 중립국에 대한 공격을 금지하고 중립국에 대한 공격을 금지하는 조약이다. 그러나 1942년 12월 7일 미국이 일본을 공격	한국의 독립을 선언한 것은 1948년 8월 15일이다. 그러나 1948년 8월 15일 이전에는 중립국에 대한 공격을 금지하고 중립국 에 대한 공격을 금지하는 조약 이 없었다. 그러나 1948년 8월 15일 이후에는 중립국에 대한 공격을 금지하고 중립국에 대한 공격을 금지하는 조약이 있다.	사실은 1948년 8월 15일 1948년 8월 15일 이후에는 중립국에 대한 공격을 금지 하는 조약이 있다. 그러나 1948 년 8월 15일 이전에는 중립국 에 대한 공격을 금지하는 조약 이 없었다. 그러나 1948년 8월 15일 이후에는 중립국에 대한 공격을 금지하고 중립국에 대한 공격을 금지하는 조약이 있다.
---	--	---

한국의 대표적 기업인 삼성전자는 1993년 12월 15일, 서울에서 열린 '93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세계의 리더'로 선정되었다. 이는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세계의 리더'로 선정된 기업 중 하나이다. 삼성전자는 1993년 12월 15일, 서울에서 열린 '93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세계의 리더'로 선정되었다. 이는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세계의 리더'로 선정된 기업 중 하나이다.

한편 30여만 명도 조금 못
오내 아닌 데가면 주변들이
일일이 가꾸는 것은 처음

은 전까지 10년 이상을 일하며 젊은 시절부터 대학에서 행정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사치를 즐기지 않았다. 이후 2007년 7월 15일에 사임하면서 월급은 1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현철은 2007년 7월 15일, 공화당이 제 1야당이 된 이후에도 한나라당에 남아 있다. 한나라당에 남아 있는 동안 2008년 4월 15일, 조현철은 '국회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되었다. 이후 2008년 7월 15일, 조현철은 '국회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되었다.	조현철은 2008년 7월 15일, '국회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되었다. 이후 2008년 7월 15일, 조현철은 '국회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되었다. 이후 2008년 7월 15일, 조현철은 '국회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되었다.
--	---	--

[illegible]

이 작품들이 화가들에게 어떤 영감을 주었는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어떤 작품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화가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들의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 책은 화가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들의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 책은 화가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들의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illegible][illegible][illegible]

이런 가운데, 2014년 12월 15일, 서울지방법원 제1부(재판장 김민준)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라 함은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결했다.

“현대오일뱅크 노사는 대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서 이웃을 위해 급여 1%를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현대오일뱅크의 작지만 위대한 출발이 우리 사회를 더욱 건전하고 따뜻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중심에는 여러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서 나의 급여 1%가 우리나라의 가치를 높이는 데 일조한다는 자부심을 갖길 바랍니다.”

2012년 2월, 현대오일뱅크 1%나눔재단 출범식, 김창기 이사장 인사말 중에서



현대오일뱅크 1%나눔재단 헌판식

“ 월급 1% 평생 기부, 그 올림은 컸다. 현대오일뱅크는 월급 1%나눔의 정을 회사 안으로부터 온 사회로 확산시켜 나갔다. 모친상을 치른 한 임원은 부의금 일부를 재단에 기탁했고, 사내 체육대회에서 받은 우승 상금, 사보 원고료, 본인 결혼 후 돌리던 떡값을 아낀 금액도 차곡차곡 쌓여 갔다. ”

2012년 9월 17일 조선일보 기사 발췌

“ 선뜻 급여 1% 기부를 결심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매달 대출 이자에 아이들 학원비, 관리비 등을 내고 시할머니에 시부모까지 모시면서 아등바등하는 아내에게 말 꺼내기가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우리보다 힘든 사람 돕는데 뭐가 고민이냐’고 오히려 편잔을 주더라고요. ”

영업본부 강태원 차장

“ 어머니가 지병을 앓고 있어 한 번 입원하면 수백만 원씩 목돈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내 집안만 챙기느라 주변 어려운 사람을 돌아볼 여유를 갖지 못했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

23년차 현장 근로자인 장래경 과장

“ 입사 전에는 솔직히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도 했지만, 제 생애 첫 월급부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쓴다는 사실에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

2012년 신입사원 홍진덕

급여 1%나눔은 본인이 중단의 뜻을 밝히지 않을 경우 퇴직 시까지 매월 급여공제 형태로 기부하게 되며, 2014년 5월 기준 1,820명 임직원 중 1,754명, 약 96.4%가 참여하고 있다.

급여 1%가 만드는 기적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기도 한다.
어려운 현실에 처한 어린이들을 위해 장학금과 후원활동을 펼치고, 갑작스레 사고를 당한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하는 등 여러 계층을 위한 실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이웃을 위해 희망을 짓다

2013년 국제구호개발단체 굿네이버스와 손잡고 베트남 뚜옌꽝주 썬남의 빈곤 아동들에게 미래의 꿈을
키워 갈 유치원을 완공했다. 썬남 유치원 외에도 베트남 티엔케 지역에 초등학교 건립을 지원하는 등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학교 건립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수익 1% 기부에 동참한 자영주유소 대표들의 모습

수익 기부 1%나눔주유소 출범

현대오일뱅크는 급여 1%에 이어 전국 180여 개 직영주유소의 순익 1%를 기부하고 있으며, 자영주유소도 자발적으로 1%나눔에 동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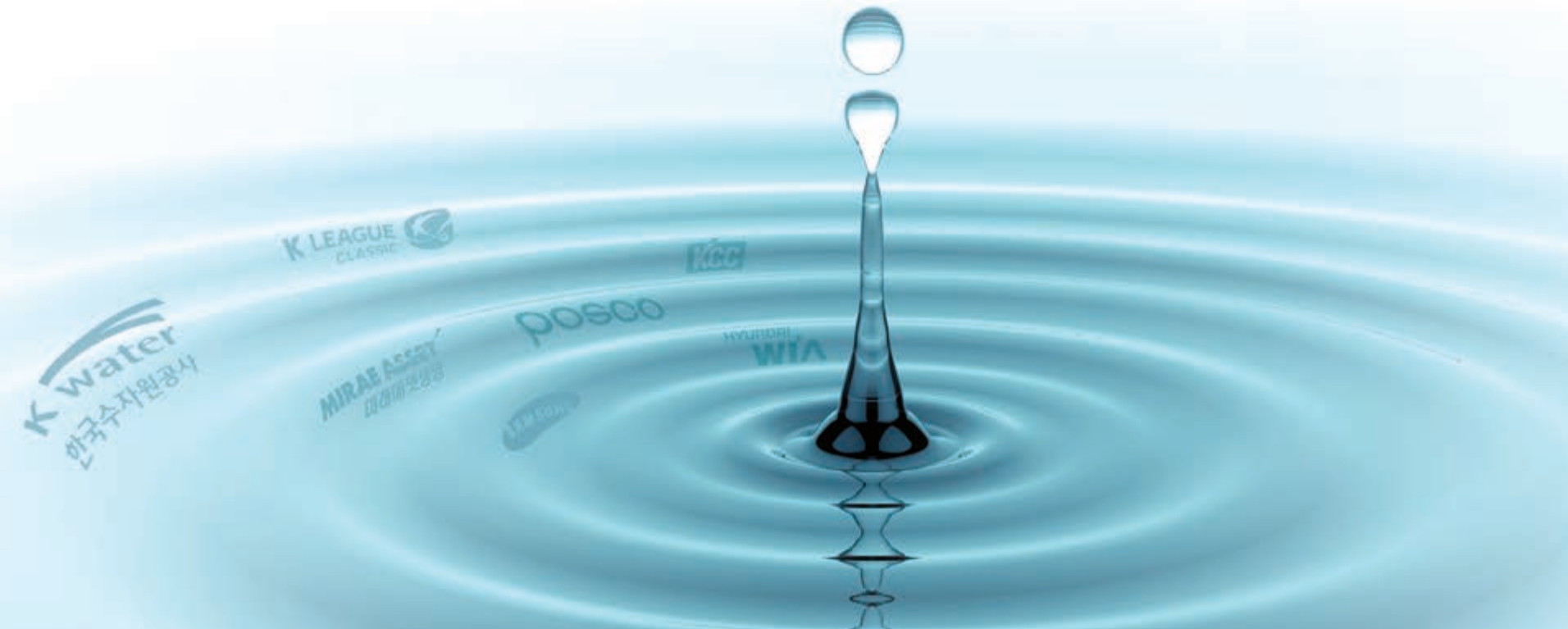
사회 곳곳으로 퍼지는 1%나눔

현대오일뱅크에서 시작된 급여 1%나눔은 포스코, 삼성토탈, 미래에셋, 한국수자원공사 등 산업계 곳곳으로 널리 퍼지고 있다.

대산 본사 셔틀버스 운행업체인 성신STA, 대동항업 등 협력업체, 임직원 가족 및 지인들의 자발적인 동참도 이어지고 있다



급여 1%나눔에 동참한 협력업체 성신STA(사진 왼쪽)와 대동항업(사진 오른쪽) 직원들의 모습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공헌 활동



“ 현대오일뱅크가 전 직원의 주유소 현장 근무를 의무화했다. 권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을 시작으로 모든 직원이 공휴일이나 주말을 활용해 주유소 근무를 하게 된다. 현대오일뱅크는 직원들의 주유소 근무수당을 주유원 시급으로 환산해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할 계획이다. ”

2010년 9월 17일 동아일보 기사 발췌

이웃과 함께 나눔을 생활화하다



행복나눔 봉사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는 임직원들의 모습

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은 이웃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팀별, 개인별 자발적으로 복지기관 일손돕기, 다문화 가정 및 독거노인 방문, 김장 담그기, 집수리 등 사회 곳곳의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과 나눔을 전하고 있다.



지역 발전의 선순환에 기여하다

대산공장 인근에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실내체육관, 현대대죽공원, 화곡저수지 둘레길을 준공해 임직원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지역 상생을 위한 장학재단, 우럭치어 방류, 지역 쌀 수매 사업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대죽공원 ▶



◀ 화곡저수지 둘레길

지역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다

프로축구팀이 따로 없어 축구 경기를 관람할 기회가 없는 지역 주민을 위해 충남 서산에 최초로 K리그 경기를 유치, 지역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또한 문화 생활의 기회가 적은 주민들을 위해 연극, 음악회, 입시 설명회 등 다양한 정보와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K리그 서산 자선경기에서 먹거리 장터를 펼친 사택 부녀회 모습

▼ 서산에서 열린 울산현대와 대전시티즌의 K리그 자선경기 모습



▲ 서산지역 고교생 및 학부모를 위해 대학 입시 설명회를 개최한 모습



▲ 서산시민들을 위해 연극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을 선보이는 모습



실버·장애인과 일하는 즐거움을 나누다



▲ 부산 신시가지오일뱅크에서 12년째 근무하는 실버 인력, 김기영 반장의 모습

▼ 세차 도우미로 활동하는 장애우들의 모습



실버 세대와 장애우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 공감하고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다. 일선 주유소에 실버 주유원의 채용을 늘려 근로를 통한 자아실현과 사회참여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한국 장애인 고용촉진공단과 연계해서는 장애유형별 훈련모델과 인성 및 예절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장애우들도 충분히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심어 주고 있다.



연평부대와 자매결연을 맺다



◀ 현대오일뱅크 체육대회에 연평부대원을 초청, 친선 경기를 치르는 모습



▲ 안보견학차 연평부대에서 훈련받는 임직원 자녀들의 모습

현대오일뱅크는 매년 연말 군부대를 방문해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경계 초소들을 돌아보며 안보태세에 대한 설명을 듣는 기회를 가지기도 하고, 각종 운동기구 등 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하기도 한다.